

서울 거주 임신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없애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턱을 낮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현재 서울에 사는 임신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신부다. 시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 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80억 적자 리버버스 중단하고 임신준비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서울시민, 오세훈 시장에 요구
“한강 리버버스, 적자 가능성 확실
업적 위주 아닌 시급정책 마련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의료 담당 병원 건립해야”

서울시민들이 한강 수상버스 사업 중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병원 설치, 임신 준비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에 리버버스 사업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 수상버스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 마곡~잠실 28.9km 구간에 수상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212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해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독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조성하고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 일 48회 한강 수상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리버버스 운영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한강 수상버스는 2024~2029년 약 80억여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인 A씨는 “출퇴근시 하루 몇 명이 리버버스를 이용하겠냐”며 “적자 가능성이 확실한 교통 정책보다 지금 운영하는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연구를 더 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강 수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수질 오염



리버버스 운항노선 및 시간.

/서울시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착장을 건설하면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리버버스 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업적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며 해당 노선에 수상버스 대신 일반 시내버스를 3대 더 증편해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시는 “리버버스는 교통수단 다양화와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도입 초기엔 일부 재정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상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병원을 건립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잡으려는 의사들의 파업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병원 유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바이오 의료단지와 연계된 연구 중심 병원만이 아닌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원을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

시 동북권사업과는 “현재 기업 유치 및 전략적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병원 유치에 관한 의견도 참고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임신 준비를 위해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산전 검사를 하려고 예약을 시도했는데 매번, 매달 실패했다”며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장이다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가임기 남녀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북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시, 40병상 추가 총 1364병상

추가하면서 총 1364병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이달 18일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서울의료원(404병상) ▲보라매병원(417병상) ▲동부병원(173병상) ▲북부병원(81병상) ▲서남병원(102병상) ▲어린이병원(112병상) ▲서북병원(35병상)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북부병원은 노인환자나 재활중심의 아급성기(회복기)환자가 많아 재활전문치료를 강화했다”며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시는 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324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북부병원에 40병상을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평가’ 우수대학 선정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신대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11월에 개소해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24개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실적, 사업운영실적, 외부기관협업사례, 입주기업 만족도, 지원 실적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류승택 창업보육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창업보육센터가 축적해 온 전문적 지원 역량과 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서울시, 덴마크 오덴세와 로봇 활성화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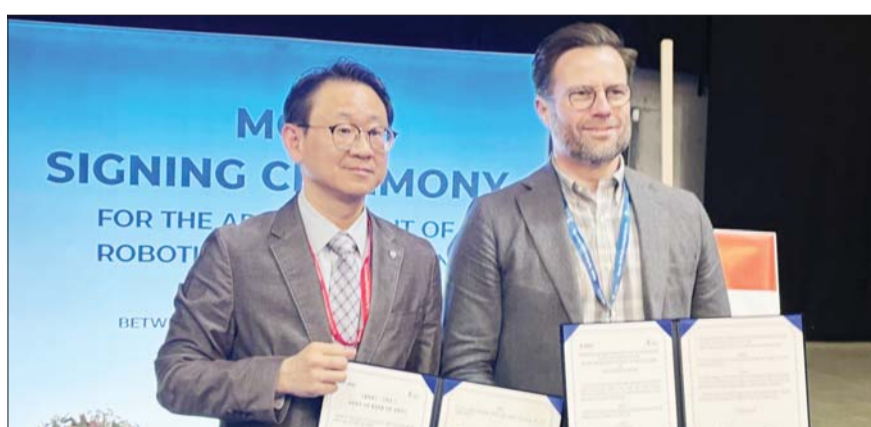
북유럽 로봇 박람회 ‘R-24’ 참가

서울시는 이달 13일 북유럽 최대 로봇·드론 박람회인 ‘R-24’에서 덴마크 오덴세와 ‘로봇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덴세는 남덴마크대학교 유니버설 로봇 등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로봇산업 선도도시가 된 지역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봇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로봇 서비스 대중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로봇 벤처·스타트업 집적단지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서울시-오덴세, 로봇 생태계 성장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

/서울시

정책 사례를 교류하고 올해 개관을 앞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기술관’에 덴마크 로봇클러스터의 기획 전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로봇산업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로봇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에티오피아, 에너지 수출 성공으로 10억달러 외환수익 달성
- ▲아이슬란드 레이캬스 반도서 또 화산 폭발

- ▲이스라엘 하마스, 3단계 휴전안 부상
- ▲WHO, 이 군 라파공격 중지 요구 “120만 난민 갈 곳 없다”

- ▲美 백악관, ‘애틀랜타 총격’ 3주기 성명
- ▲日 게이샤 거리 막는다…사진 찍고 담뱃재 넣는 관광객들